

## 정글(jungle)선교 두 번째 이야기

-보르네오 무룻산 방문기-

오 정 면 (농민 장로, 경북 상주)

나는 『농촌과목회』지 2000년 가을호에 정글선교이야기를 실었던 적이 있다. 이번에는 이 지구상에서 두 번 있기 어려운 기적의 산(山), 큰 믿음의 산, 그 현장을 보고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을 혼자 간직할 수 없어서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내가 10년이 훨씬 넘게 보르네오 및 폴리네시아 군도를 다닐 때 이 능력의 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러나 너무 멀기도 하고 기회가 닿지 않았었는데 드디어 지난 겨울에야 그 산에 오를 수 있었다.

나는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가을 농사를 끝내고 보르네오의 깊은 정글 속을 누볐다. 여러 산 속을 다니다가 림방(Limbang) 지역의 뿐뎃(pundut)이라는 물 속 마을에 가게 되었다. 거기서도 무룻산(murut Mt.)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 지역 사람들은 무룻산 성회에 안 가본 사람이 없다고들 하며 그 산의 은혜 체험담을 저마다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닌가.

## 바클랄란(Bakelalan) 가는 길

뽀뽀 마을에서 무릇산까지는 천 리가 넘었다. 그래도 내가 다니던 중에서는 그 성산에 가장 가까이 온 곳이어서 이번에는 말로 그 산에 올라가 보리라 작심하고 나섰다.

물 속 마을에서 새벽에 배를 타고 40여 분만에 립방에 도착하였고 립방에서 라와스(Lawas)까지는 쾌속정으로 4시간 반만에 강, 바다, 그리고 다시 강을 거슬러 도착할 수 있었다. 오전 11시 40분 경에 도착한 나는 바클랄란에 가는 차가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라와스 온 시내를 쏘다니며 차를 찾았다. 오후 1시에 출발한다는 것이다. 그 곳에 가는 차는 특수 차량으로 원주민들이 크레타(Kereta)라고 부르는 차인데 우리나라 픽업차에 큰 화물차 바퀴를 달아놓은 우스꽝스럽게 생긴 차였다. 이 차가 아니면 그 곳에 갈 수가 없다고 한다.

짐칸에 우리 내외까지 십여 명이 뽀뽀이 탔다. 바클랄란까지 몇 시간이 걸리느냐고 물어보니 어떤 이는 5시간, 어떤 이는 6시간, 또 어떤 이는 8시간 걸린다니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거리였다.

오후 1시에 출발한 차는 해발 2000m가 넘는 이란(Iran) 산맥을 굽이굽이 돌아 넘어 가는데 비가 자주 오는 탓에 길이 찰지고 질고 미끄럽고 또 얼마나 많이 파였는지 무어라 표현할 길이 없다. 70년대 한국의 산길은 선생이었다. 이 길은 벌목 운송로였기 때문에 관리를 하지 않아 상태가 말이 아니고 어떤 곳에는 굽은 원목 두 개로 다리를 놓았는데 차가 그리고 지나가야 했다. 아슬아슬하기 그지없다. 내리막 길에서는 2-3m 씩 짝악 미끄러지기도 하고 가파른 길에서는 전진 후진을 수십 번 하기도 하였다. 죽음을 무릅쓴 순례의 길, 바로 그것이었다.

원주민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우리 내외는 사정이 달랐다. 생전 처음 가는 길이고 처음 보는 험한 길이어서 ‘주여!’를

한없이 외치며 앉았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운전기사는 차창을 치면서 노래를 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화가 났다. ‘저놈이 술에 취하여 한 손 운전엔 노래까지 하며 장단을 치고 있으니 차를 세우고 저놈의 뺨을 쳐 정신을 차리게 해야겠다’고 소리치니 내자(內子)는 나를 말리며 좀더 두고 보자고 했다. 그런데 자세히 그 노래를 듣자니 그것은 원주민들의 찬송가였다. 나는 놀랐다. 십여 명의 생명을 신고 죽음과 방불한 고비를 넘나드는 그 험준한 산길에서 차창을 치면서 기뻐 찬송을 부르는 운전기사의 그 깊은 신앙을 보고 나는 내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웠다.

6시간 걸린다던 바클랄란이 10시간 반이 넘어 밤 11시 40분 여야 어느 외딴 집 앞에 도착했다. 칙흑 같은 어둠 속에 비는 오고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자세히 들으니 한국인은 내리라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우리 배낭을 내려 메고는 웰컴을 외치며 집안으로 안내했다. 우리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라 밥을 달라고 부탁하니 자정이 훨씬 넘어서나 감사히 저녁을 먹을 수 있었다.

그 집은 바클랄란 STP(초등신학교, Sekolah Theorrgi Pertama) 교장 아초(Acho) 목사의 사택이었다. 우리는 학교 이야기며 우리 여행 이야기며 두어 시간을 보내고 파김치가 되어 새벽 3시경에 잠자리에 들었다.

이 STP가 있는 마을 이름은 부둅아루(Buduk Aru)이고 바클랄란은 법정 동명인데 이 바클랄란 동에 5개의 자연 마을이 있다. 부둅아루에서 두둅노르까지는 걸어서 2시간 반이 걸린다. 이 다섯 마을 외에는 사방 100리 안에는 마을이 없고 원시 생활을 하는 소수 민족 퍼난(Pernan)족이 정글 속에서 사냥으로 유랑하며 살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한두 달 간격으로 사냥감을 따라 유동하며 집이 없고 한시간 정도 나뭇잎을 쳐서 움막을 짓고 살아가고 있다.

이튿날 무릇산을 오르기 위해 2시간 반을 걸어서 부둅노르 마을에 도착했다. 신학생 2명이 안내자로 동행하였다. 한 학생

은 넬슨이고 다른 학생은 지미였다. 농담으로 ‘와!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안내자가 되다니, 나는 행복하다!’고 하니 모두들 웃었다. 넬슨 만델라, 지미 카터, 모두 이 시대의 유명한 대통령을 지낸 분들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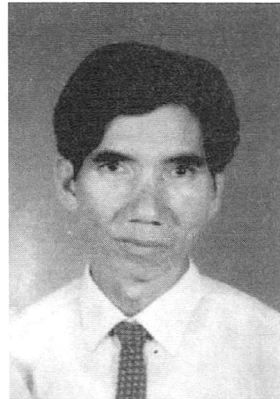
가는 도중에 사람들을 만났는데 일하던 손을 멈추고 한결같이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며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리 집에 유하라 등 말로 할 수 없는 친절과 감동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빼놓지 않았다. 우리는 목사 사택에 여장을 풀었다. 그 목사님도 유명한 사도 바울과 똑같은 이름이라 우리는 이름 때문에 또 한번 크게 웃었다.

## 거룩한 산 무릇 이야기

부독노르 마을에 아궁(Agung)이라는 목사가 계시다. 들은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그 목사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전인미답(前人未踏)의 무릇산 정상에 올라 20여 일을 기도하는 중 ‘너는 이곳을 거룩히 구별하고 내 집을 지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그는 산을 내려와 산밑 다섯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외쳤다.

“하나님이 이 무릇산 꼭대기에 교회를 지어라 하셨으니 우리 이 산에 교회를 지읍시다.”

그러나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은 저 목사가 미쳤다고 하면서 비웃을 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뒤흔 소리를 하라고 욕박질렀다. 그런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것은 불신자들이 아궁 목사를 따라 나선 것이다. 불신자들은 ‘교인들이 못 짓는 교회를 우



아궁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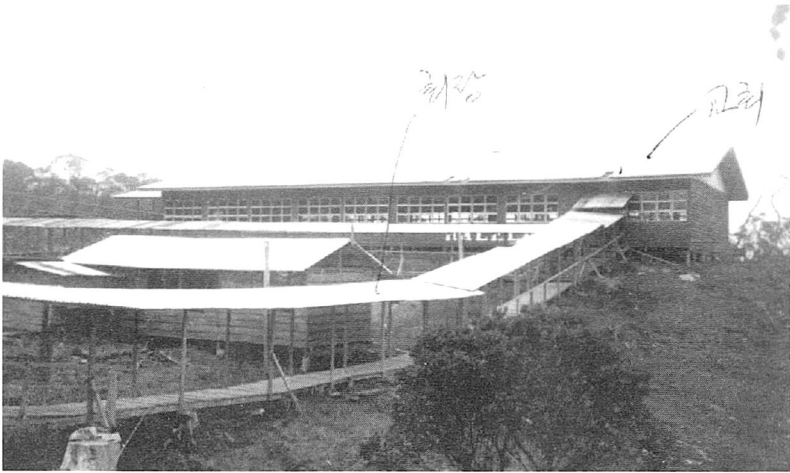
리가 짓자고 하면서 톱과 망치를 들고 무릇산에 올랐다. 그때가 1988년 봄이었다. 그들은 산짐승 외에는 다녀본 적이 없는 그곳에 아궁 목사가 갔던 길로 그 엄청나게 굵은 나무들 사이로 길을 내고 정상에 올랐다. 거기서 그들은 맹수들과 독충들과 싸우면서 나무를 베고 켜서 교회를 짓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번 올라가면 5-6일씩 산상에 머물면서 확실히 모르는 하나님을 새롭게 믿으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성경을 배우며 그야말로 한 점 사십없이 순결무구한 신앙으로 일했다.

이 때 또 한번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교인들이 감동되어 총동원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바클랄란 다섯 마을이 100% 교인화가 되면서 전동민 총동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작업조가 조직되어 교대로 성전건축이 계속되어 그 해에 완공되었다.

나는 자로 재어 보았다. 교회는 길이 약 32m에 폭이 약 15m의 거대한 교회였다. 내부만 140평이 훨씬 넘었다. 그리고 나서 거처할 집을 지었는데 세어보니 지붕이 82개였다. 한 지붕 밑에 방이 2-4개씩이고 한방에 7-8명이 잠을 잘 수 있게 지었다. 그래서 일시에 3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



교회와 마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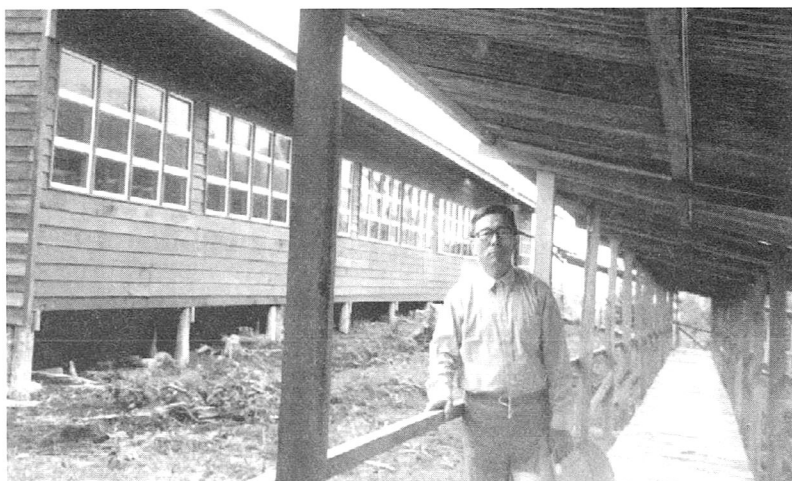


### 교회와 회랑

다. 그 집들에는 솥, 식기류, 침구류 등 생활 도구는 물론 무수한 드럼통이 집집마다 있었고 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교회와 집들은 벽과 바닥을 판자로 고상 가옥으로 지어져 있었다.

나무를 제외한 모든 것은 전부 마을에서 짊어지고 가져다 놓은 것이었다. 마을에서 교회까지 회랑을 이었는데 비를 맞지 않고 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석으로 지붕을 덮고 바닥은 판자로 다리를 놓았다. 그 길이가 자그마치 196m가 넘었다. 이런 공사를 어떻게 당년에 해 낼 수 있었을까? 그들은 목수도 아니었고 누가 돈을 대어 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 낼 수 있었을까? 기적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들은 순전히 자력으로 함석과 집기들을 장만하여 9시간 10시간을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 험한 산길을 올랐다. 이것이야말로 전대미문(前代未聞)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들은 이 무릇산 정상 평원에 망치와 톱만으로 집을 짓고 내려와서 마을마다 교회를 지었다. 또 따로 기도소를 마을 밖 조용한 곳에 지어 놓았다. 바글랄란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의 희생과 봉사, 죽도록 충성한 살아있는 믿음을 볼 수 있었다.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산 신앙의



회랑에 선 필자 / 산을 오르는 동안 바지가 다 찢어졌다.

현장이었다.

### 무릇산 등정 이야기

우리가 무릇 성산에 올라가던 그 날은 음력 신사년 설날이었다. 내 나이 66세 되는 해 첫날 새벽기도를 마치고 여장을 추리는데 마을 사람들이 쌀이며 침낭이며 겨울 외투 등을 갖고 왔다. 그들은 하나같이 은혜의 산에 올라 큰 은혜를 받고 오라면서 위하여 기도하겠노라고 격려해 주었다.

우리는 7시가 지나서야 길을 나섰다. 가다보니 벌목 운송길은 더러 있었으나 벌목은 하지 않아 원시림이 그대로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파울 목사 말이 9-10시간은 걸릴 것이라 하였고 교인들은 중간에서 자고 가라고 권했다. 왜냐하면 우리를 노인들로 보았기 때문이다.

가는 길은 그야말로 험준하였다. 산거머리와 나무거머리가 얼마나 많은지 사정없이 달려들어 피를 빨았다.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다리로 배로 목으로 팔로 달려들어 피가 솟아났다. 주



무릇산 정상(해발 2,399 m), 여기에 고산 식물군이 있다.

민들 말이 피 없이는 못 간다는 말을 실감했다. 어떤 곳은 수백 미터의 높이로 경사 70-80 도가 넘는 가파른 곳도 있고 기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곳도 많았다. 바클랄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 봉사를 했는지 길마다 감동이었다. 2-3 시간 정도의 거리마다 쉬어 갈 수 있는(숙소도 됨) 집을 지어 놓았고 3km가 훨씬 넘는 관교(관자로 놓은 다리)를 놓았는데 지금도 이 관교는 계속 길어지고 있다. 그분들이 시간이 가면 새벽에 올라와서 나무를 베고 켜서 다리를 계속 이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자금을 대는 것도 아니고 상을 주는 것도 아닌데 다만 거룩한 산에 쉽게 오르도록 하기 위한 배려일 뿐이었다.

우리는 천신만고 8시간 사투 끝에 무릇산 정상에 올랐다. 해발 2,399m이다. 이 산 정상에 높이 1.5m 정도 되는 작은 바위가 있고 그 바위 앞에 “당신은 거룩한 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라는 팻말이 서 있었다. 물론 영어와 런바왕(Len Bawang)어로 기록되어 있었다.





판교(板橋)에 선 문달님 권사, 길이가 무려 3km가 넘는다.

8시간의 고통과 거룩한 산에 올랐다는 감사의 눈물이 펄펄 쏟아졌다. 30여 분을 기도하고 산상마을로 약 15분을 더 갔더니 거기에는 큰 평원이 있고 큰 마을이 있었다. 물론 사람은 우리 일행 4명뿐이었다. 마을 입구에 “당신은 거룩한 땅에 서 있습니다.”라고 또 팻말이 서 있었다. 영어와 런바왕어로 적혀 있었다. 한라산 정상보다 훨씬 높은 곳이기 때문에 30여분 지나니까 출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저기서 이틀 밤을 자고 내려왔다. 기도와 묵상과 찬송으로 지낸 은혜의 이틀이었다.

### 북한 성도들이 이 산을 다녀가다

이 성산에서는 일년에 2-3회 바클랄란 성도들의 성회가 열리고 2년에 한번씩 세계대회가 열리는데 세계 대회 때는 2,3천 여명이 모인다고 한다. 지난 2000년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세계 대회가 있었는데 2천2백 여명이 모였다고 한다.

이 성회(聖會)가 있을 때 마을은 텅텅 비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 동민이 참가하는데 노인들도, 애기 엄마들은 아기를 업고 오르며 힘이 들어 영영 울면서 올라와서 집회에 참석하고 울면서 내려가는 그야말로 “눈물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이다.

그런데 지난 2000년 대성회 때 참가국 57개국이 성전 문에 붙어있는데 북극의 스웨덴 핀란드에서 남극의 뉴질랜드까지 망라되어 있었고 53번째에 ‘North Korea’가 적혀 있는 것이 아닌가. 보는 순간 나는 흥분되었다. 혹시 남한을 북한으로 잘못 기록한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하여간 북한의 성도들이 참가했다는 데 대해 흥분과 감격으로 기도했다. 우리에게 통일을 달라고 호소하고 북한이 복음화되도록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이 산 정상 부근에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식물이 많았고 저릉초도 여러 종류가 번식하고 있었다.

산을 내려오니 마을 사람들이 너나없이 반가이 맞으면서 은혜 많이 받았느냐며 노인들이 참 대단하다고 인사를 아끼지 않았다. 나는 성회를 주관했던 지도자들을 만나 53번째 참가국이 북한이 맞느냐고 확인했더니 그들은 분명히 North Korea라고 대답했다. 5,6명인 것으로 안다는 것이다. 나는 북한의 복음화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눈물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다.

내자(內子) 문달님 권사는 눈물 없이 올라갔다 눈물 없이 내려왔다. 다만 거머리에 물려 많은 피를 흘렸을 뿐 무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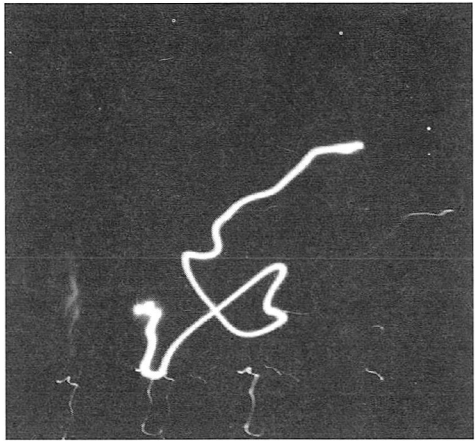


저릉초 (pitcher plant)

## 산상 성회에서 나타난 이적들

산상집회 때에는 많은 이적들이 일어난다고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를 쓰고 올라가는지도 모른다.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목사가 『성산의 기적』(Miracles of Holy ground)이라는 책을 썼다. 그 책에 보니까 수많은 기적들이 열거되었고 증인들의 증언이 수록되어 있었다.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



치유의 빛 - 아궁 목사가 병든 소년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빛줄기가 나타났고 그 소년은 건강하게 살고 있다

기적처럼 물통의 물이 기름이 되어 성회가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는 이적으로부터 병자들의 병고침은 무수히 많았다. 특히 '하늘의 찬양'이 기록되었는데 그 내용은 그 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등 아직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 때 하늘에서 찬양이 울려 퍼졌다. 3000여명이 뛰어나와 하늘을 쳐다 보니 3000명의 찬양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졌다고 했다. 마을 사람 모두도 이 찬양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아궁 목사는 62세 되던 1994년에 수소우천(受召于天)하셨다. 교만의 조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들었다. 아궁 목사는 참으로 위대한 목사였다.

산상 성전건축 이후 라와스, 립방, 바리오 등 그 부근 몇 개 군(郡) 지역이(남한의 1/3면적) 99% 복음화 되었고 비참한 원주민들의 삶을 180도로 바꾸어 놓았다. 그 깊은 산 속 작은 마

을에 비행장이 건설되고 있고(2001년 7월 준공 예정) 마을은 어느 종족의 마을보다 깨끗하며 삶의 환희가 넘쳤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도를 부탁하였고 내 집에 가자고 권하며 선물을 주고 음식을 대접하였다.

바클랄란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한시간 반을 걸어서 차가 있다는 마을에 갔다. 그러나 차는 오지 않고 생면부지인 우리에게 한 노인이 다가왔다. 그 노인은 자기 집으로 안내하여 차를 대접하고 자리를 깔아주며 낮잠을 권했다. 한 처녀는 라면을 끓여와서 점심을 권했다. 낮선 우리에게 그렇게 친절할 수 없었다. 보르네오, 폴리네시아 등지를 많이 다녀왔지만 여기 같은 곳은 본 적이 없고 이분들처럼 확실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을 본 적이 없다.

세계 도처에는 기독교 성지가 널려 있다. 그것들은 유적일 뿐 그 지역에 사는 신앙인들의 신앙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곳 바클랄란의 살아 움직이는 믿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간증으로 나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